

북경대 소장 《洪湛軒尺牘》 原文 및 校譯(Ⅰ)*

姜 贊 洙**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洪湛軒尺牘》 原文 및 校譯
2.1 <與鐵橋·秋庫> ~ 2.9 <與鐵橋·秋庫>

1. 들어가는 말

본고는 18세기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實學者 湛軒 洪大容¹⁾의 연행 문헌 가운데 현재 北京대학 古籍部에 소장된 《日下題襟合集》²⁾에 수록된 《洪湛軒尺牘》의 앞부분을 교감하고 이를 다시 현대문으로 옮긴 것이다.

주지하듯 《일하제금합집》은 1766년에 子弟軍官 자격으로 燕行했던 洪大容과 金在行³⁾이 乾隆 32년(1767) 3월에 치러질 會試를 준비하기 위해 燕京에

* 본 연구는 2018년도 원광대학교 연구 지원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圓光大學校 人文大學 中國學科 副教授(fromshanghai@wku.ac.kr)

1) 홍대용(1731~1783): 자는 德保, 호는 湛軒·弘之이다. 그가 연행했던 해인 1766년 2월에 항주에서 과거를 치르기 위해 燕京에 와 있던 嚴誠·潘庭筠·陸飛와 교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홍대용의 《洪湛軒尺牘》·《乙丙燕行錄》, 李德의 《靑莊館全書》, 《燕杭詩牘》(규장각 소장), 《中朝學士書翰》(고려대학교 소장), 《후지즈카의 추사연구자료》(과천문화원 소장) 등의 연행문헌이 전한다.

2) 북경대학교도서관 도서 분류번호: [LSB/2649] 이 책에 대해 박현규 교수는 “북경대 선본 실장본 《일하제금합집》은 1850년(도광 30)에 羅以智가 汪氏 振綺堂에 소장된 주문조조 편본을 초록한 책자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日下題襟集》 편찬과 판본>, 《韓國漢文學研究》 47집, 2011. 670쪽 참조.)

3) 김재행(1718~?): 자는 平中, 호는 養虛, 본관은 安東이다. 군관자제 신분으로 홍대용과

은 항주 출신의 嚴誠,⁴⁾ 陸飛,⁵⁾ 潘庭筠⁶⁾ 三學士와 乾淨衲(지금의 琉璃廠 및 前門大街) 일대에서 만나 交遊하며 주고받은 詩箋과 書箋을 모아 청나라 朱文藻⁷⁾가 편찬한 적독집이다.

이 책에 관해서는 서지학자 박현규 교수가 199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일하제금합집》의 발굴과정과 서지사항, 편찬과정과 국내의 현존 諸 版本을 상세히 조사하여 고찰하였다.⁸⁾ 중국학자 劉婧은 2014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의 影印과 본인의 관련 논문을 모아 《日下題襟集》을 출간했고,⁹⁾ 2016년에는 중국에 소장된 《일하제금합집》 3종과 한국·미국에 소장된 4종에 대한 판본 상황을 또 한 차례 간략히 소개하였다.¹⁰⁾

다행스럽게 필자는 박현규 교수가 선뜻 내어주신 북경대 소장 《홍담헌적

함께 연행하여 항주 문인들과 교류하였다. 고려대 소장 《中朝學士書翰》에는 이들이 주고받은 편지가 많이 담겨있어 참고할 만하다.

- 4) 엄성(1732~1767): 자는 立庵·力闇, 호는 鐵橋, 중국 浙江省 仁和人이다. 그의 생졸년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乾隆49년 刻本《杭州府志》 권94 文苑條에서 “嚴誠, 字力闇, 號鐵橋, 仁和人. 毛髻就學, 手不釋卷. 乾隆乙酉, 列府庠. 六書諧聲洞悉源流, 篆楷則遠宗漢魏晉, 藻繪則近法倪·黃, 詠歌所出一本《性靈賦》, 稟直方與人和易. 臨事則守正不阿. 乙酉登鄉試薦. 歿年, 三十有六.”이라고 적은 것과 《을병연행록》의 <초3일 간정동에 가다>條에서 “자리를 정하고 서로 성명과 나이를 물으니, 엄성의 자는 역암이고 별호는 철교이며 나이는 임자생(1732)이고, 반정균의 자는 난공이고 별호는 추무이고 나이는 임술생(1742)이다.”(《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218쪽)라고 적은 것에 의거하면, 엄성은 1732년에 태어나 1767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저작으로 《鐵橋集》이 있다.
- 5) 육비(1719~?): 자는 起潛, 호는 筱飲, 중국 浙江省 仁和人이다. 乾隆 30년(1765) 鄉試에 解元으로 합격했다. 그는 그림과 시에 조예가 깊었다고 하며, 저작으로 《筱飲齋稿》가 있다.
- 6) 반정균(1742~?): 자는 蘭公, 호는 德園, 중국 浙江省 錢塘人이다. 乾隆 43년(1778)에 진사과에 급제하여 翰林에 들어갔고, 이후 陝西道監察御史를 역임했다. 그의 저작으로 《稼書堂集》이 있다.
- 7) 주문조(1735~1806): 청대 藏書家이자 校勘學家이다. 자는 映潛, 호는 朗齋, 중국 浙江省 仁和人이다. 乾隆 연간에 大學士 王杰의 추천으로 북경에 올라와 《四庫全書》의 편찬에 참여했고, 鮑廷博, 吳騫, 阮元, 孫星衍, 王昶 등 당대 장서가와 교류하며 이들의 저서 편찬을 도운 바 있다. 저서로는 《續禮記集說》, 《說文系傳考異》, 《東軒隨錄》, 《碧溪叢抄》, 《碧溪詩話》, 《碧溪草堂詩文集》 등이 전한다.
- 8) 박현규, <朝鮮·清朝人의 燕京 交遊集 — 《日下題襟合集》의 발굴과 소개> (《韓國漢文學研究》 23집, 1999, 229-247쪽.)와 <《日下題襟集》 편찬과 판본> (《韓國漢文學研究》 47집, 2011, 653-677쪽.) 참조.
- 9) 劉婧, 《日下題襟集》, 상해고적출판사, 2014.
- 10) 劉婧, <18 世紀中韓文人交流詩文集《日下題襟合集》與《日下題襟集》의 傳抄本> (《溫州大學學報》 29輯, 2016, 11-19쪽.) 참조.

독》의 영인 자료를 살펴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이후 이 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문헌적 가치를 중심으로 초보적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¹¹⁾

《홍담헌척독》에는 홍대용이 연행했던 1766년과 그 이듬해인 1767년에 청나라 세 선비와 주고받은 友誼, 이별의 서글픔, 학술 교류, 귀국 후에 주고받은 안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 가운데에는 《湛軒書》, 《乙丙燕行錄》, 《靑莊館全書》 등의 국내 연행 문헌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홍대용의 書箋과 四言詩 9首로 구성된 詩箋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록 이 문헌들 속에 이미 수록된 글이라고 하더라도 《洪湛軒尺牘》과 비교해보면 상호 기재 상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보인다. 이외에도 《홍담헌척독》은 홍대용이 청나라 文友에게 보낸 서한을 그대로 抄寫한 것으로, 수신인과 발신인의 이름, 작성 일자 및 추신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온전히 적고 있어 지금껏 국내 연행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부가적인 서신 왕래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향후 홍대용의 문집을 보충하거나 校勘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依據가 될 것으로 본다.

이에 《홍담헌척독》 원문 전체에 대해 교감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현대문으로 번역하여 향후 관련 연구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만 이 책이 총 37葉에 걸쳐 30개의 小題 아래로 만 삼천 여 자가 淨寫되어 있는 비교적 큰 규모라는 것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먼저 第1信에서 第9信까지의 원문, 주석 및 번역문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필자의 선행연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에 대해서는 본고를 통해 수정 제시함으로써 본서의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www.kci.go.kr

11) 拙稿, <북경대학 소장본 《洪湛軒尺牘》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45집, 2010.

2. 《洪湛軒尺牘》 原文 및 校譯

2.1 < 與鐵橋・秋厓 >¹²⁾

2.1.1 大容頓首白:

夜來僉兄, 啓居神安.¹³⁾ 昨者竟日團歡, 亦可以慰數日懷想之苦. 但情根之鞏結, 從而轉深, 悄坐孤館, 寸心如割. 夜則就枕合眼, 黯黯之中, 忽若二兄在坐談笑, 不覺蹶然醒來, 殆達朝不能成睡, 不得已彊自排遣, 以爲“我與彼各在七千里外, 風馬牛不相及也.”¹⁴⁾ 雖可懷也, 亦於我何有哉?” 乃自言自笑, 以爲得計, 獨怪其倏然之頃, 情魔依舊來襲, 盤據心府, 則所謂得計者已擾散無跡矣. 諒此境界, 乃非癡則狂也, 亦不覺其何以致此. 想二兄聞之, 必當一憐一笑也.

【역문】

대용이 돈수하고 아웁니다.

밤새 편안하셨는지요? 어제는 온종일 함께 즐겁게 지내게 되어, 수일 간 뵈고 싶어 괴로웠던 마음을 위안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벗에 대해 애뜻함이 얹히고 더욱더 깊어져, 조용히 쓸쓸한 객사에 앉아있자니 마음을 도려내는 듯합니다. 밤이 되어 자리에 누워 눈을 감고 슬픔에 잠겨 있던 중에 문득 두 대형이 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것만 같아 저도 모르게 벌떡 깨어나서는 아침이 다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이런 상상을 떨쳐내며, “나와 저들은 각기 칠천 리 밖에 있어, 말이나 소가 제 짝을 구하나 서로

12) 《湛軒書外集》 卷2의 <杭傳尺牘> 初九日條와 《靑莊館全書》 卷63의 <天涯知己書>에 일부 내용이 수록.

13) ‘起居神安’을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14) 《左傳・僖公四年》에 나오는 중국고사로, 말이나 소가 제 짝을 구하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미치지 못함을 뜻한다.

멀리 떨어져 있어 미치지 못하는 격이거늘, 비록 그리워한들 내가 또 어쩔 도리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스스로 웃음 지으며 그것으로 되었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괴이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움이 이전처럼 밀려와 가슴 구석구석 차지하면, 잠시 벗들을 잊겠다던 생각은 흩어져 흔적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이런 처지를 헤아려 보면 바보짓이 아니면 미친 짓이라고 하겠으니, 또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대형께서 이런 정황을 들으신다면, 필연 가련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할 것입니다.

2.1.2 嘗竊以爲得會心人說會心事，固是人生之至樂。是以羸糧策馬，足跡殆徧于國中，其好之非不切也，求之非不勤也。每不免“薄言往愬，逢彼之怒”，¹⁵⁾ 惟憤悱之極天，亦可回，所謂“伊人宛如清揚。”¹⁶⁾ 蓋弟則已傾心輸腸，願爲之死矣。其數日從遊，亦可謂身登龍門，指染¹⁷⁾禁臠，¹⁸⁾ 其榮且幸也極矣。乃以不能終身伏侍，戚戚於分手之際，人苦不知足也。佛家輪廻，果有此理，竊願來世同生一國，爲弟爲兄爲師爲友，以卒此未了之緣耳。且有一說，吾生既無再會之望，則當各戒其子，世講此義，俾不敢忘，或冀其重續前緣，如吾輩今日之事也。始欲于書中不爲淒苦語以傷彼此懷，中心激發，自不能已。且一去之後，雖欲爲淒苦語，將于何處發耶？信筆及此，還令人發一大笑也。奈何，奈何？卽印石三方，併送上，惟擇而爲之。蘭兄如可爲之分勞爲妙，此其工拙不足言，計于歸後撫其手澤，聊以寄懷而已。昨日，二兄尊堂諱字所書，及某市街云云所書，落在郡中¹⁹⁾，幸恕其潛妄，更爲書示焉。嚴兄令郎名及年亦示之。所欲言千萬，續當更布。不宣

眷弟大容頓首

15) 《國風·邶風》중 <柏舟>의 “亦有兄弟，不可以据。薄言往愬，逢彼之怒.”를 인용한 말. ‘薄言’은 천박한 말, ‘愬’는 ‘訴’의 통용자로 토로한다는 뜻이다.

16) 《國風·鄭風》중 <野有蔓草>의 “有美一人，清揚婉兮，邂逅相遇，适我愿兮.”를 인용한 말.

17) 指染: 染指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손가락을 술 속에 넣어 국물의 맛을 본다, 남의 물건을 옳지 못하게 몰래 가진다는 뜻이다.

18) 禁臠: 이익을 독차지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지 않음.

19) ‘落在羣中’을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家叔所請畫本，敬以付上耳。

【역문】

일찍이 저는 뜻 맞는 사람을 만나 심중의 일을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짊어지고 말을 채찍질하며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녔으니, 벼를 너무 좋아해서 부지런히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매번 가벼이 말을 토로한다고 사람들의 노여움을 피할 수 없었으나, 분한 마음이 하늘에 닿을 정도라 해도 “아름다운 이여, 풍채가 맑고 빼어나십니다.”라는 말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벼 향한 마음으로 주린 배를 채우며, 이를 위해 죽기를 바랍니다. 그 며칠간을 쫓아 사귀다 보면 자신이 등용문에 올라 서로의 뛰어난 바를 나눌 수 있으니, 그 또한 지극히 영예롭고 다행스럽겠지요. 그런데 종신토록 함께 지내지 못한다 하여 이별을 앞두고 슬픔에 젖어 드니, 사람이 만족할 줄 몰라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불가의 윤회에 과연 이러한 이치가 있다면, 저는 내세에서라도 한 나라에 함께 태어나 아우 되고 형이 되고 스승 되고 벗이 되어 이 못다 이룬 인연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고픈 말이 또 한 마디 있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동안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면 마땅히 자식들에게 일러 대대로 이러한 의리를 지켜 나가도록 하거나, 혹은 지금 우리의 만남과 같은 전대의 인연을 자식들이 다시 이어가길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지에 치량하고 고통스러운 말을 적어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가슴에 울컥하는 것을 제 자신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번 떠난 후에는 비록 구슬픈 말을 전하고자 한들, 어디에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붓 가는 대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으니, 또 큰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어찌해야 하나요?

인장석 세 개를 함께 보내오니 골라 새겨 주십시오. 난형(반정균)께서도 만약 하실 수 있다면 일을 나누어 멋지게 해보시지요. 도장 새김을 잘하고 못하고는 논할 것이 못됩니다. 돌아간 뒤에 가까이 두고 어루만지며 잠시 그리운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어제는 두 대형의 존당의 휘호를 적은 것과 아무개가 어느 저잣거리 운운하며 적은 것을 사람들 많은 데다 놔두고 왔습니다. 그 경망스러운 행동을 용서하시고 다시 써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엄형(엄성) 자제의 이름과 나이도 좀 알려 주십시오.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시 편지 드리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아우 대용이 돈수합니다.

숙부께서 부탁하신 화지를 삼가 보내 드립니다.

2.2 <又>20)

夜來僉履何似. 昨承覆音, 仰感仰感.²¹⁾ 弟或²²⁾鄙僕, 必面侯²³⁾顏色而來矣. 兩日皆以尊客在座, 未免自外退歸, 尤切悵慕. 昨承得暇一會之教, 弟則何日不暇, 只恐兄處日日有妨耳. 今日方往觀西山,²⁴⁾ 歷探五塔²⁵⁾諸勝而歸, 只恨拘于形迹, 不能與二兄同去耳. 留玉²⁶⁾鄙僮, 往探安候, 偶于歸時, 迎至車前, 且先佈明早趨奉之意. 但聞貴寓人客相接, 以是爲悚聞耳. 昨來副使丈詩中有乘²⁷⁾鄉信之語, 此是遠客第一喜事, 一賀一羨, 未知兩室皆滿室萬福否. 弟輩歸到鴨江, 乃見家書, 鬱意可想. 昨呈扇把, 其言若爲二兄豫待者, 然且適是二把, 亦非偶爾耶! 本謂相贈, 承教以繳到, 似是詞不達意耳. 留奉, 不備.

弟大容頓首上鐵橋・秋庫僉座下

書面公子之稱, 未知何所據也. 此中無識之人或以此稱之, 而既係不雅, 且不敢

20) 《湛軒書外集》 卷二의 <杭傳尺牘> 十一日條에 일부 내용이 수록.

21) 위의 책에서는 '仰感仰感'으로 적고 있다.

22) '弟戒'를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23) '候'를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24) 본래 서산은 河南省 북부의 太行山에서부터 북경성 외곽 서북쪽까지 연결된 산을 가리키는데, 그 지맥인 香山, 玉泉山, 萬壽山 등을 서산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25) 북경 안에 위치한 五塔寺를 가리킨다.

26) '留書'를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27) '承'을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當，亟去之爲望.

【역문】

밤새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어제 답신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비복(鄙僕)에게 반드시 직접 뵙고 안부를 전해드리라고 일렸는데, 이를 내내 손님이 와계셔서 밖에 있다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니, 가슴 속에 애뜻한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어제 틈을 내어서 한번 모이자고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이든지 뵙겠습니다만, 형님께 매번 방해되지나 않을까 걱정됩니다. 오늘은 서산을 구경하러 갑니다. 오탑사(五塔寺)의 여러 경치를 둘러보고 돌아올 것입니다. 다만 일정에 매여 두 대형과 함께 가지 못하니 아쉽기만 합니다. 편지를 비복에게 맡기며 건너가서 안부를 여쭙라 했었는데, 우연히 저희가 돌아올 때 수레 앞으로 와 맞이하며 또 내일 아침에 찾아오시겠다는 뜻을 먼저 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듣자니 대형이 거처하시는 곳에 손님이 연이어 찾아온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어제 부사께 보내신 시구 가운데 고향 편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는 타향살이 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일이지요. 축하드리면서도 부럽습니다. 두 대형의 집안이 다 평안하십니까? 저희는 압록강까지 이르러서야 집에서 보낸 편지를 받아 볼 수 있으니, 그 우울함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부채를 드리자 마치 두 대형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다니, 마침 그 부채 두 자루를 드린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본시 서로 선물하고자 하는 뜻이었는데 편지에서 돌려보내겠다고 하시니 아마 말에 의미가 전달되지 못한 듯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대용이 철교와 추루 대형께 돈수하고 올립니다.

(추신) 편지에서 ‘공자(公子)’라고 호칭하셨는데,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는 모르는 사람들이 간혹 이렇게 호칭하는 것으로, 고상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도 없으니 이 호칭을 바로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2.3 <又>28)

容白:

日間僉履安重. 弟日前以擅作西山之行, 見罪衙門, 數日姑難出頭, 恐或虛佇,²⁹⁾ 謹此走告. 昨來冊頁謹領, 益見僉兄厚誼, 只媿無以爲報也. 弟等行期, 似在廿一或廿四. 比始料, 雖若是差遲, 聞其畧定, 令人一喜一悲, 未知將何以挨遣也. 都在數日間奉悉, 姑此不備

愚弟大容頓首

在行³⁰⁾所望, 一般今日食後進拜, 不知貴處或無他故耶, 示之也.

【역문】

홍대용이 아뢰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며칠 전 허락 없이 서산을 구경하러 갔다가 아문에 미움을 사는 바람에 수일 동안 바깥출입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혹 공허하게 마냥 기다리실까 두려워 삼가 이 편지로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 보내신 접책을 받고 엄형의 돈독한 마음에 감동하였으나, 다만 보답할 방도가 없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대략 이십일일 또는 이십사일 경에 돌아갈 것 같습니다. 비록 조금 늦추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대충 정해진 상황을 들으니 일희일비하는 가운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일 내에 다시 편지 드리고자 하며, 이만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우제 대용이 돈수합니다.

(추신) 김재행이 오늘 식후에 배방하기를 희망하는데, 계신 곳에 혹여 다른 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28) 《湛軒書外集》 卷二의 <杭傳尺牘> 十五日條에 수록.

29) '或恐虛佇'을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30) 在行: 김재행(1718~?)을 가리킨다.(위의 주3 참고.)

2.4 <又>31)

拜上. 伏惟夜來僉侯萬安. 弟見阻衙門, 不得與金兄³²⁾偕作, 極鬱極鬱! 明欲進敘, 而恐有貴冗, 幸示之. 不宜

大容白, 謹上鐵橋・秋庫僉經案下

【역문】

배상합니다. 간밤에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아문으로부터 출입통제를 받아 김 형(김재행)과 함께 할 수 없어, 마음이 매우 우울합니다. 내일은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대형께서 바쁜 일이 있으실까 걱정됩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홍대용이 적어 삼가 철교와 추루 대형께 올립니다.

2.5 <愛吾廬八景小識>33)

<山樓鼓琴(향산루에서 거문고를 타면서)>, <島閣鳴鐘(농수각에서 종을 울리면서)>, <鑑沼觀魚(일감소에서 물고기를 보다가)>, <虛橋弄月(보허교에서 달을 희롱하면서)>, <蓮舫學仙(태을연 배를 타다가 신선됨을 배우니)>, <玉衡窺天(선기옥형으로 하늘을 살펴보다)>, <靈龕占蓍(영조감에서 시초를 점치면서)>, <穀壇射鵠(지구단에서 활을 쏘면서)>.

2.5.1 廬之制, 方二架³⁴⁾. 當中而爲室者一架, 北以半架爲夾室, 東以半架爲樓, 而竟其長. 西南皆以半架爲軒, 曰‘湛軒’而竟其長. 南至于樓下, 上盖以草, 下爲石

31) 《湛軒書外集》 卷二의 <杭傳尺牘> 十六日條에 수록.

32) 子弟軍官의 신분으로 홍대용과 함께 연행한 김재행(1718~?)을 가리킨다. 그의 자는 平中, 호는 養虛, 安東人이다.

33) 《湛軒書外集》 卷二의 <杭傳尺牘> 初五日條에 수록.

34) 架: 두 기둥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단위.

砌, 四面有庭, 可容旋馬, 南有方沼, 方可十數步, 引水以灌之, 深可以方舟, 築園島, 圍可十步, 上建小閣, 以藏渾儀, 環沼而累石爲堤, 上廣均于庭, 繚以短牆, 墻下取土爲堦, 植以花樹. 此廬之大槩然也.

【역문】

집의 규모는 사방 두 칸인데, 중간에는 방이 한 칸이고, 북으로는 좁은 방이 반 칸이며, 동으로는 반 칸짜리 누대를 만들어 전체 두 칸 길이를 꽉 채웠다. 서남쪽에는 가로세로 모두 반 칸짜리인 헌(軒)을 만들어 ‘담헌’이라고 하여 두 칸 길이를 꽉 채웠다. 남쪽으로는 누대 아래까지 위에는 풀로 덮고 밑에는 돌을 쌓았다. 사면에는 뜰이 있는데 말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이고, 남으로는 네모진 연못이 있는데 사방 십여 보 가량 되었다. 물을 끌어와 채우니 배를 띄울 만한 깊이가 되었으며, 가운데 둥글게 쌓은 섬은 둘레가 열 걸음 정도였다. 위에 작은 누각을 세워 혼천의를 보관해 놓았고, 연못가로 돌을 쌓아 제방을 쌓았다. 그 위의 넓이가 대략 뜰 만한데, 낮게 담장을 친 뒤 그 담장 아래로 흙계단을 만들고 꽃나무를 심었다. 이것이 대략적인 집 모양새이다.

2.5.2 東樓, 掛數幅山水障子, 床有數張元槩,³⁵⁾ 主人所自鼓也. 名其樓曰‘響山’, 盖取諸宗少文³⁶⁾語也. 故曰‘山樓鼓槩’.

【역문】

동쪽 누각에는 산수화 몇 폭이 걸려 있고, 침상 위에는 거문고 몇 대가 놓여 있는데 이는 주인 스스로 타는 것이다. 그 누각을 ‘향산(響山)’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는 종소문의 말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래서 ‘산루고금(山樓鼓槩)’이라

35) 본래 ‘玄槩’인데, 청나라 康熙帝의 이름을 피휘하여 ‘元槩’으로 적은 것이다.

36) 宗少文(375~443): 南涅陽(지금의 河南省 鎮平) 사람으로, 일명 ‘宗炳’이라 불린다. 南朝 시대의 ‘東林十八高賢’ 중 한 명으로, 특히 서화에 능했다. 젊은 시절 여러 명산을 유람하다 병이 들어 귀향한 뒤, 다녀온 명산을 상상하여 그림을 그려 방안에 걸어 놓고 거문고를 타며 위안을 삼았다는 ‘宗少文臥遊’의 전고가 있다.

고 하였다.

2.5.3 島閣曰‘籠水’，盖斷杜工部之詩而取其義也.³⁷⁾ 渾儀有報刻之鐘，且有西洋候鐘，隨時自鳴，故曰‘島閣鳴鐘’.

【역문】

섬 위의 누각을 ‘농수각(籠水閣)’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두보의 시구를 인용하여 그 뜻을 취한 것이다. 혼천의에는 시각을 알리는 종이가 있었고, 또한 시각에 맞춰서 저절로 울리는 서양시계도 있었다. 그래서 ‘도각명종(島閣鳴鐘)’이라고 하였다.

2.5.4 其方沼以活水灌之，不甚混濁. 林園竹樹，倒影水底，蕩漾奇幻，名之曰一鑑，盖取諸晦翁詩也.³⁸⁾ 魚種極繁殖，大者有盈尺焉. 吹浪噴沫，跳躑于荇藻之間，詩人所謂‘泌之洋洋，可以療饑’者也. 故曰‘鑑水觀魚’.

【역문】

그 네모난 연못은 흐르는 물을 끌어왔기에 그다지 혼탁하지 않았다. 정원수와 대나무 그림자가 바닥까지 비치어 물이 흔들리면 온갖 기이한 형상을 만들었다. 이 연못을 ‘일감소(一鑑沼)’라고 이름 붙였으니, 이것은 주자(朱子)의 시구에서 따온 것이다. 물고기가 잘 자라서 큰 것은 한 척 남짓하였다. 물거품을 뿜어대며 수초 사이를 헤엄쳐 다니니 시인들이 ‘넘실넘실 물살 부딪치니, 배고픔을 달랠 수 있다.’라고 일컬었던 정황일 것이다. 그래서 ‘감수관어(鑑水觀魚)’라고 하였다.

2.5.5 沼之北岸，橫木爲橋，以通于島閣，曰‘步虛橋’. 每于風恬浪靜，天光徘徊，

37) 당나라 杜甫(712~770)의 “日月籠中鳥，乾坤水上萍”(〈衡州送李大夫七丈勉赴廣州〉) 참조.

38) 북송시대 朱熹(1130~1200)의 “半畝方塘一鑒開，天光云影共徘徊”(〈觀書有感〉) 참조.

雲氣飛鳥，映發空界，夜則蟾光落影，金波歷亂，人行其上，恍然若駕雄虹而昇天衢也。故曰‘虛橋弄月’。

【역문】

연꽃 북쪽 가에는 나무를 걸쳐 다리를 만들어 섬 위의 누각으로 통하게 하였는데, 이 다리를 ‘보허교(步虛橋)’라고 하였다. 매번 바람이 자고 물결이 고요하면 해가 비치고 구름 기운이 날아오르는데, 그 텅 빈 곳에 그림자를 드리낸다. 밤이면 달빛에 그림자를 드리우니 그 그림자가 금빛 물결 위에 어지러이 뒤섞인다. 사람이 다리 위를 걷다 보면 황연히 웅장한 무지개를 타고 하늘 위를 오르는 듯하였다. 그래서 ‘허교농월(虛橋弄月)’이라고 하였다.

2.5.6 斲木爲舫，可坐二人，一頭圓而大，一頭尖而高，畧施丹彩，爲蓮花形，名之曰‘太乙蓮’。盖取像于《海仙圖》中太乙蓮舟也，³⁹⁾ 故曰‘蓮舫學仙’。

【역문】

나무를 깎아 겨우 두 사람이 탈 만 배를 만들었는데, 한쪽 머리는 둥글고 또 한쪽 머리는 뾰족하고 높았다. 붉은 빛을 약간 칠해 연꽃 형태를 만들어, ‘태을연(太乙蓮)’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배의 모양이 《해선도》의 ‘태을연주(太乙蓮舟)’에서 그 모양을 취했다. 그래서 ‘연방학선(蓮舫學仙)’이라고 하였다.

2.5.7 渾儀之作，盖出于璣衡遺⁴⁰⁾制，而日月運行，星辰躔度，可卽此而求焉。故曰‘玉衡窺天’。

【역문】

혼천의의 제작은 선기옥형의 전래 작업에서 나온 것으로, 해와 달의 운행

39) ‘太乙’은 일명 太一眞君으로, 太乙星 별자리에 산다는 天神 중 가장 존귀한 신이다. 그가 연잎을 배처럼 타고 다니는 것을 그린 그림에서 의미를 취했다는 뜻이다.

40) 《湛軒書外集》 卷二의 <杭傳尺牘> 初五日條에는 ‘遺’자로 적고 있다.

경로와 별자리의 움직임을 이를 통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옥형규천(玉衡窺天)’이라고 하였다.

2.5.8 東樓之北，設一小龕爲蓍室，名之曰‘靈照龕’。蓋取諸古詩‘靈明在上照’之句也。將有爲也，必焚香洗心，依筮儀揲而求之。故曰‘靈龕占蓍’。

【역문】

동쪽 누각의 북쪽에는 조그만 감실을 만들어 시초 넣는 곳으로 삼고, ‘영조감(靈照龕)’이라고 이름하였다. 이 말은 고시 가운데 “영명이 위에서 비친다.”라는 시구에서 취한 것이다. 도모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향을 피워 마음을 씻어내고, 시초의 궤에 의해 그 일을 미리 헤아려 살펴보았다. 그래서 이 방을 ‘영감점시(靈龕占蓍)’라고 하였다.

2.5.9 沼之東，疊石爲壇，可坐數人，爲習射之所，名之曰‘志穀’。蓋取諸孟氏語也。⁴¹⁾ 讀書之餘，課農之暇，會隣人能射者，張幙于北園，耦進而爭勝，以相樂焉，故曰‘穀壇射鵠’。

【역문】

연못 동쪽에는 돌을 쌓아 단을 만들었는데 여러 명이 앉을 만하였다. 활쏘기 연습을 하는 곳으로 삼고, ‘지구(志穀)’라고 하였다. 이 말은 맹자의 말씀에서 따온 것이다. 글공부하고 농사짓는 가운데 틈틈이 활 쏘 줄 아는 이웃과 모여 북쪽 정원에 장막을 치고 나란히 나아가 승부를 겨루며 서로 즐기었다. 그래서 이곳을 ‘구단사곡(穀壇射鵠)’이라고 하였다.

www.kci.go.kr

41) 《孟子·告子上》의 “羿之教人射，必志於穀。” 참조.

2.6 <附鐵橋愛吾廬八詠>42)

2.6.1 <山樓鼓槩>

幽人惜遙夜, 起坐理朱弦.⁴³⁾

樓高萬籟靜, 響與空山連.

悠悠念皇古, 茲意誰能傳.

【역문】

<향산루에서 거문고를 타면서>

은거하는 이 아득히 긴 밤이 안타까워
일어나 앉아 거문고 주현을 어루만지네
누각은 높고 세상은 고요하니
그 소리 공산에 울려 퍼지는구나
유유히 옛날을 생각하니
이 마음 누가 전할 수 있으리오

2.6.2 <島閣鳴鐘>

鎗鎗此何聲, 或擬蓮華漏.

平分二六時, 以警宵與晝.

主人常惺惺, 不必待新⁴⁴⁾敏.

【역문】

<농수각에서 종을 울리면서>

42) 《湛軒書外集》 卷二의 <杭傳尺牘> 十七日條에 수록.

43) '弦'자의 마지막 획이 생략되어 있다.

44) 《湛軒書外集》 부록의 <愛吾廬題詠>에는 '晨'자로 적고 있다.

암암하게 들려오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흑여 연화에 물 떨어지는 소리인가 하노라
 고르게 열 두 시각으로 나누어
 밤과 낮을 알리고
 주인이 항상 깨어 있으니
 다시 시계 중 울리길 기다릴 필요 없으리라

2.6.3 <鑑沼觀魚>

清泉何淪漪，白石亦磊砢。
 儵魚若游空，倒吸藤花妥。
 眞樂誰得知，一笑子非我。

【역문】

<일감소에서 물고기를 보다가>
 맑은 샘에 어찌 물결치는가 하였더니
 백석이 또 겹겹이 쌓여 있고
 작은 고기는 공중에서 뛰노는 듯한데
 거꾸로 등꽃을 머금고 있네
 이 참된 즐거움을 누가 알까
 그대도 내 아념에 한 번 웃는다오

2.6.4 <虛橋弄月>

晷約⁴⁵⁾通夜氣，晚步意超忽。
 林影盪寒波，俯見太古月。

45) 晷約: 작은 나무다리 또는 외나무다리.

不惜露沾衣, 孤吟到明發.

【역문】

<보허교에서 달을 희롱하면서>
외나무다리에 밤기운이 통하는데
천천히 걷다 보니 마음이 초연해지네
수풀 그림자 찬 물결에 흔들리니
엎드려 태고의 달을 바라보네
이슬에 옷 적실까 걱정하지 않으니
내 외로이 읊조리며 날 밝기나 기다리리라

2.6.5 <蓮舫學仙>

嶽蓮開十丈,⁴⁶⁾ 落瓣⁴⁷⁾ 自何年.
剡木爲形似, 凌波學水仙.
敏舷⁴⁸⁾ 歌一曲, 不羨木蘭船.⁴⁹⁾

【역문】

<태을연 배를 타다가 신선됨을 배우니>
화산 위에 피었던 십장 연꽃
꽃잎은 어느 해에 떨어졌는가
나무 깎아 연꽃 모양 만들어
물결 가로지르며 물속 신선이나 닮아볼거나

46) 嶽蓮: 華山 위의 玉仙井에 피었다는 연꽃. 金나라 王處一이 쓴 《西嶽華山誌》의 “蓮花峰: 傍有玉井, 生千葉白蓮花, 食之令人羽化. 古詩云, 太華峰頭玉井蓮, 花開十丈藕如船.” 참조.

47) ‘瓣’을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48) ‘舷’자의 마지막 획이 생략되어 있다.

49) 南朝 梁任昉이 쓴 《述異記》 卷下の “木蘭洲在潯陽江中, 多木蘭樹. 昔吳王闔閭植木蘭于此, 用构宮殿也. 七里洲中, 有魯般刻木蘭爲舟, 舟至今在洲中. 詩家云木蘭舟, 出于此.” 참조.

뱃전 두드리며 한 곡조 노래하니
목란 배 부럽지 않구나

2.6.6 <玉衡窺天>

羲和⁵⁰⁾與常儀,⁵¹⁾ 萬古法猶秉.
往來驗盈虛, 遲速辨祥咎.
陋彼拘墟子,⁵²⁾ 終身乃坐井.

【역문】

<선기옥형으로 하늘을 살펴보다>
회화와 상의는
만고의 역법을 관장하여
오고 가는 가운데 넘치고 비워짐을 징험하고
더뎠다 빨랐다 하며 상서로움과 재앙을 구별하는데
비루한 저 개구리는
평생토록 우물에만 앉아 있네

2.6.7 <靈龜占蓍>

靈龜有何靈, 以問乞靈者.
吉凶論是非, 趨避敢苟且.
居易以俟命, 枯草行可捨.

【湛軒見此詩, 甚以爲疑. 余告之曰, “昔朱子欲攻韓侂胄⁵³⁾, 筮得遯卦而止. 故記曰‘義則

50) 羲和: 중국 신화에서 時曆을 만들었다는 太陽女神.

51) 常儀: 중국 신화에서 달을 낳아 길렀다는 인물로, 常羲라고 부르기도 한다. 후세에는 황제의 밑에서 曆法을 관장한 대신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52) 拘墟子: 우물 안 개구리.(《莊子·秋水》의 “井龜不可語于海者, 拘于虛也.” 참조.)

可問, 志則否⁵⁴⁾, 而顏含亦曰‘自有性命, 無勞蓍龜.’⁵⁵⁾】

【역문】

<영조감에서 시초를 점치면서>

영감이 무슨 영험함이 있을까

영험을 비는 이에게 묻노라

길흉으로 시비를 의논하니

쫓고 피함을 감히 구차히 하라

편한 데 기거하며 천명을 기다리니

마른 풀은 길에다 버릴 것이로다

【담헌이 이 시를 보고 매우 궁금해 하였다. 그래서 내가 담헌에게 “옛날 주자는 한탁주를 공격하려다가 시초점을 보고 둔괘가 나오자 그만두며, ‘의로우면 물어볼 수 있으나 뜻을 두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안함도 ‘저 스스로 성정과 운명을 지녔으니 힘들여 시초점을 치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2.6.8 <穀壇射鵠>

學者志于穀, 審固技乃神.

中豈由爾力, 失當反其身.

直內而方外, 敬義交相因.

53) 韓侂胄(1152~1207): 자는 節夫, 相州安陽(지금의 河南성 安陽) 사람이다. 魏郡王 韓琦의 曾孫이자, 寶寧軍承宣使 韓誠의 아들이다. 恩蔭으로 관직에 올라 閣門祗候, 宣贊舍人, 帶御器械을 거쳐 淳熙 말년에 汝州防禦使, 知閣門事 등의 관직에 역임했다. 慶元 2年(1196), 한탁주는 당시 재상이었던 留正과 당쟁을 벌이던 중 沈繼祖를 御史로 삼아 주희에게 ‘十大罪’를 물어 탄핵하였고, 이에 寧宗은 주희를 면직시킨 바 있다.(《宋史·韓侂胄傳》 참조.)

54) 《禮記·少儀》의 “問卜筮曰, ‘義歟, 志歟. 義則可問, 志則否.’”를 인용한 것이다.

55) 顏含(생몰년 미상): 東晉시대의 名臣으로, 자는 弘都, 琅琊華(지금의 山東 臨沂지역) 사람이다. 咸康四年(338)에 光祿勳을 역임하던 顏含이 나이가 들어 은퇴하려고 하자, 郭璞이 안함을 만나 시초점을 쳐주고자 하였다. 이에 안함은 “年在天, 位在人. 脩己而天不與者, 命也. 守道而人不知者, 性也, 自有性命, 無勞蓍龜.”라고 하였다.(《資治通鑑》 권96 <晉紀·十八> 참조.)

【역문】

<지구단에서 활을 쏘면서>

배우는 이는 활 당기는 일에 뜻을 두고
살피 견고히 하면 재주가 신통하리рода
적중하는 것이 어찌 너의 힘 때문일까
실패하면 마땅히 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리
안을 반듯하게 하고 밖을 방정히 하면
공경심과 의로움이 서로 일어날 것이로다

2.7 <與鐵橋・秋厓>⁵⁶⁾

頃奉, 晚去早來, 令人益覺快快. 昨者阻雨, 不得俾⁵⁷⁾候, 悵鬱悵鬱. 夜來寧風, 僉旅味⁵⁸⁾無恙否. 弟等行期廿一則已分差過, 可圖更進. 然以有限之晷, 欲暢無涯之懷, 難矣. <八詠詩>, 咀之嚼之, 其味津津, 信乎有德者之言也. 就其中<靈龕>之詩, 尤見其卓然峻拔, 無世儒拘牽之氣, 直令人有凌萬頃超八垠之意, 誦其詩可以知其人矣. 雖然才高者過于脫灑, 則或不免于大軍遊騎出太遠而無所歸也. 此弟之亦不能無過計之憂于此也. 其書本薄而易損, 宜于作帖而不合于粘壁.⁵⁹⁾ 此去麗楮品雖劣, 差能耐久, 幸再勞揮灑以惠也. <八詠>, 皆以各行字樣, 比前須稍大, 而若以隸法則尤妙. 蘭兄<記>文亦以大小二本書惠爲望. 別告鐵橋兄, 叔父欲得'晚含齋'三字爲堂扁, 或楷, 或隸, 或草, 隨意寫出無妨. 白楮二本爲此付上. 前惠<飛來峯>畫本, 叔父以貽費旅裝, 深致愧謝. 對付忘未及之漫, 此付告, 種種煩溷, 自念多端. 其所以愛慕之, 若將以役使之, 不勝愧悚. 以此, 弟于二兄之書與畫, 愛之好之, 不復干, 亦嘗謀購空帖于市上, 而終以貽之難而不敢煩請焉. 日後遊詠之

56) 《湛軒書外集》 卷二의 <杭傳尺牘> 十九日條에 일부 내용이 수록.

57) 위의 책에서는 '奉'자로 적고 있다.

58) 旅味: 객지 생활

59) '壁'을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際, 如有所得, 一年一便, 幸蒙寄惠, 何啻百朋之賜也. 不宣

小弟洪大容拜上鐵橋・秋庫僉座下

【역문】

편지 올립니다. 늦게 갔다가 일찍 돌아오니 서운함이 더욱 느껴집니다. 어제는 또 비가 와 길이 막혀 문후를 여쭙 수 없으니 우울하기만 했습니다. 밤새 모질게 바람이 불었는데, 대형들 모두 객지 생활에 별일 없으신지요? 저희는 이십일일에 떠나려고 했던 것이 조금 지체되어 다시 나아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끝없는 정회를 펴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팔영시>는 되새길수록 그 맛이 진진하니 참말로 덕 있는 분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중 <영감>시는 더욱 우뚝하게 준발하여 세상 유가들의 구속된 기운이 없음을 엿볼 수 있어서, 곧장 만경창파를 넘어 우주를 초월하는 뜻을 갖게 합니다. 그 시를 읽으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주 높은 자가 지나치게 탈속의 깨끗한 기품을 지니게 되면, 아마도 대군의 기마병이 너무 멀리 출병함에 돌아갈 바가 없게 되는 상황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저는 또 매우 염려가 됩니다. <팔영시>를 적은 그 서본은 얇아서 손상되기 쉽고, 서첩을 만들기는 좋아도 벽에 붙이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여기 보내는 해동의 닥나무 종이는 비록 품질이 좋지 못하나 조금은 오래 가니, 수고스럽지만 다시 휘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영시>는 모두 각 행에 따라 글자 모양을 전보다 좀 크게 하되, 만약 예서로 써주신다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난형의 <담헌기>는 크고 작게 두 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철교 대형께 말씀드리면, 숙부께서 '만함재(晩含齋)' 세 글자를 받아 집안 편액으로 삼고자 하시니, 해서체든 예서체든 초서체든 임의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글씨를 받기 위해 흰색 닥나무종이 두 권을 보내드립니다. 앞서 보내주신 <비래봉> 화첩은 숙부께서 먼 길 채비를 하는데 써버리셨으니 송구스럽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처럼 요청하는 것이 종류별로 혼잡스러우니 제가 생각하기에 도 많네요. 그 애모한다는 것이 마치 일 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로써 제가 두 대형의 글씨와 그림을 좋아한다고 해도 더는 하지 마십시오. 또한 일찍이 저잣거리에서 빈 서첩을 사서 마지막으로 수고를 끼치고자 했는데, 감히 번거롭게 부탁드릴 수가 없네요. 후일에 유람하며 읊조린 것 가운데 괜찮은 것이 있어 일 년에 한 차례 보내주신다면 수많은 친구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할 것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아우 홍대용이 철교 추루 대형께 배상합니다.

2.8 <與秋庫>60)

書成未發，秋庫兄<記>文付來，莊誦再三，只深感。荷歸粘荒廬，又是無上之寶。且從此而于‘湛’字之義，如有一半箇進益，乃是吾秋庫之賜也。來書本頗堅韌，可以傳久無損，再以小紙如闇兄所書<八詠詩>者，以惠裝帖之資如何？<記>文，甚愜鄙望，惟其稱道鄙人處，語近張皇。歸後，流輩之見之者，必以此爲大言誑人，得此浮實之美褒也。殊爲悶絕。

大容追告秋庫尊兄

【역문】

편지를 써놓고 미처 보내지 못하였는데, 추루(반정균) 대형께서 <담헌기>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재삼 읽어보면서 그저 감격할 따름입니다. 가지고 돌아가 누추한 초려에 붙여 놓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담(湛)’자의 뜻에 절반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는 저의 추루(반정균) 대형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보내 드리는 서본(書本)은 질겨 오래도록 손상되지 않고 보전할 수 있으니, 다시금 역암(엄성) 대형이 <팔영시>를 써주신 것과 같은 작은 크기의 종이에 써서 장첩할 수 있게 해주시는

60) 이 편지는 《湛軒書外集》에 수록되지 않았고, 《乙丙燕行錄》에 19일 기사에만 일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것은 어떨까요? <담헌기>의 글은 제가 바라던 터라 매우 흡족합니다만, 저 같이 변변찮은 인물을 칭찬한 말씀이 다소 장황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 이를 읽어본 벗들이 필히 허풍떠는 사기꾼이 이런 허황한 칭찬을 들었다고 여길 것입니다. 매우 민망합니다.

대용이 추루 존형께 덧붙여 고합니다.

2.9 <與鐵橋・秋厓>⁶¹⁾

2.9.1 夜來僉履萬安。昨覆承慰。只緣未見蘭兄手蹟爲悵然，如有失矣。頃進閣兄以詩註事有云云，而昨未畢叩其說，鯁生⁶²⁾淺識，何敢妄論。但吾兄既許之以友，則有疑不效，便佞容悅，亦可謂之友乎？況西林先生⁶³⁾虛懷不忤之德，吾兄已有所受之也，弟何敢畏忌而自疎乎？

【역문】

밤새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어제는 답신을 받고 위안을 얻었습니다. 다만 난형(반정균)의 수적을 볼 수 없어 마치 무엇인가 잃어버린 듯 우울했습니다. 역암(엄성) 대형께서 시주(詩註)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그 설명을 미처 다 여쭙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소인의 얄은 식견으로 어찌 감히 망령되이 의론하겠습니까? 다만 대형들께서 이미 저를 벗으로서 허락하셨는데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서 묻지도 않고 웃는 얼굴로 비위나 맞춘다면 어찌 벗이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서림(西林) 선생의 허심탄회하고 거스르지 않는 덕스러움을

61) 《湛軒書外集》 卷二 <杭傳尺牘>의 初十日條에 일부 내용이 수록.

62) 鯁生: 지식이 천박하고 우매한 사람, 소인배.

63) 吳穎芳(1702~1781): 자는 西林, 호는 樹虛, 浙江省 仁和(지금의 杭州) 사람이다. 六書와 音樂에 정통하고 시문에도 능했으며, 말년에는 唯識論에 심취했다고 한다. 丁敬・金農魏之琇・奚岡과 더불어 '西泠五布衣'라고 불린다. 저서로는 《臨江鄉人詩集》 4卷, 《吹爾錄》 50卷, 《說文理董》 40卷, 《音韻討論》 4卷, 《文字源流》 6卷, 《金石文釋》 6卷이 전한다.

대형들께서 이미 받아드린 바가 있으신데, 제가 어찌 감히 꺼려 스스로 멀리하겠습니까?

2.9.2 竊意《朱子集註》，獨于《庸》·《學》·《論語》三書，用功最深，而《孟註》次之。于《詩經》則想是未經梳刷，如六義之不明，訓詁之疊詞，大旨之牽彊。雖于鄙懷，已有多少疑晦。但其破<小序>拘係之見，因文順理，活潑釋去，無味之味，無聲之聲，固已動蕩于吟誦之間，則乃其深得乎《詩》學之本色，而發前人所未發也。且以<關雎>一章言之，則或以爲文王詩，或以爲周公詩者，固其執滯而不通矣。但年代既遠，無他左驗，則用傳疑之法，亦可矣。

【역문】

제가 생각건대, 《주자집주》는 유독 《중용》·《대학》·《논어》 세 책에 공을 가장 들였고, 《맹자집주》가 다음입니다. 《시경》은 아마 재차 검토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육의(六義)의 밝지 못함과 훈고(訓詁)의 겹친 해석과 대지(大旨)의 억지스러움은 제가 보기에다 다소 의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서>의 얽매인 견해를 깨고 문장에 따라 이치를 좇고 활발하게 해석하심에 맞없는 맛과 소리 없는 소리가 진실로 읊조리는 가운데 넘쳐흐르니, 《시경》 학문의 본질에서 깊이 체득하여 이전 사람들이 미처 밝히지 못한 것을 밝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관저> 1장으로 말하자면, 혹자는 문왕(文王)의 시라 하고 혹자는 주공(周公)의 시라고 하는데, 각자의 의견을 고집하며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대가 이미 멀고 달리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 의심스러운 것을 그대로 전하는 방법을 써도 될 것입니다.

2.9.3 朱子之一筆勾斷，必以爲宮人之作者，愚亦未敢知也。但于義甚順，于文章無碍，婦孺之口氣，都是天機聖德之徧覆。于是乎益著虛心誦之。想味其風采，瀾瀾乎有遺音矣。其作者之爲誰，某姑舍之可也。至若<小序>之說，則愚亦畧見之矣。其于此章取孔子之言，點綴爲說，全不成文理，此則朱子<辨說>備矣。蓋其蹈襲剽

竊, 彊意立言, 試依其說而讀之, 如嚼禾⁶⁴⁾頭, 全無餘韻, 其自欺而欺人也, 亦已甚矣. 如<鄭風>刺忽之說, 朱子所謂“鍛鍊得罪, 不容誅.”, 最是忽可憐者, 實是千古美談. 況忽之辭婚, 其意甚正, 若以此罪之, 則其爲世道心術之害, 當如何也. 若以《集注》爲非朱子手筆而出于門人之所記, 則去朱子之世, 若此其未遠也. 先輩之世, 講俱有可據, 雖爲此說者, 豈不知爲其朱子親蹟, 而特以舉世尊之, 彊弱不敵, 乃游辭僞尊, 軟地插木, 爲此陽扶陰闢之術也. 其義理之得失, 固是餘事, 卽此心術, 已不可與入于堯舜之道矣.

【역문】

주자가 일필로 글귀를 끊어 필히 궁인(宮人)이 지은 것이라 하였으나, 저 역시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글의 뜻이 잘 통하고 문장이 막힘이 없으며, 아녀자나 아이들 같은 말투여서 모두 천기(天機)와 성덕이 두루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허심하게 읽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 풍채를 음미해 보면 졸졸 물 흐르듯 여음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 지은이가 누구인가는 잠시 내버려두어도 될 것입니다. <소서>의 설에 대해서도 저는 대략 살펴보았습니다. 이 장(章)에서는 공자의 말을 따다 여기저기 점철하여 말한 것이 전혀 문장의 이치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자가 <변설(辨說)>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답습하고 표절하여 억지로 이론을 세운 것이어서, 그 말에 의해 읽어 보면 마치 벼를 씹는 듯 전혀 여운이 없으니,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 또한 너무 심합니다. <정풍(鄭風)>이 홀(忽)이란 인물을 풍자한 것이라는 학설에 대해, 주자는 ‘단련이 죄를 지었으나 죽일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홀은 가장 가련한 사람이지만 실로 천고의 미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홀이 혼인을 사양함은 그 뜻이 매우 바른 것인데, 만일 이로써 벌을 내린다고 하면 세도와 심술(양명학)의 폐해가 되는 것이 마땅히 어떻겠습니까? 만일 《집주(集註)》가 주자 자신이 직접 적은 것이 아니고 문인의 기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자가 생존했던 때로부터 그리

64) ‘木’을 誤記한 것으로 보인다.

멀지 않을 것입니다. 선학들의 세대에는 강학하는 데 있어 모두 근거가 있었으니 비록 이런 말을 한 자라도 어찌 주자가 직접 쓴 것임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온 세상이 그를 존송하여 강약의 세력이 서로 맞서지 못하고, 떠도는 사설이 거짓으로 존중되고 무른 땅에 나무를 쫓는 듯하니, 겉으로는 부추기고 속으로는 억제하는 술수입니다. 그 의리의 득실은 진실로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도, 바로 이러한 심술로는 이미 더불어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參考文獻 >

- (朝鮮)李德懋 撰, 《靑莊館全書》, 《韓國文集叢刊》 257-259책, 民族文化推進會, 2000.
- (朝鮮)洪大容 지음, 김태준·박성준 옮김,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돌베개, 2001.
- (朝鮮)洪大容 지음, 조규익·장경남·최인환 주해, 《을병연행록》, 태학사, 1997.
- (朝鮮)洪大容, 《湛軒書》, 《韓國文集叢刊》 248책, 民族文化推進會, 2000.
- (淸)朱文藻 編, 羅以智 再抄, 《日下題襟合集》, 北京대학 소장본.
- 김태준 編, 《乙丙燕行錄(영인해설)》,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3.
- 박현규, <《日下題襟集》 편찬과 판본>, 《韓國漢文學研究》 47집, 2011.
- 박현규, <朝鮮·淸朝人の 燕京 交遊集 — 《日下題襟合集》의 발굴과 소개>, 《韓國漢文學研究》 23집, 1999.
- 劉 婧, <18世紀中韓文人交流詩文集《日下題襟合集》與《日下題襟集》의傳抄本>, 《溫州大學學報》 29輯, 2016.
- 劉 婧, 《日下題襟集》, 上海古籍出版社, 2014.
- 拙 稿, <《中朝學士書翰》의 자료 가치에 대한 管見>, 《중국어문논총》 42집, 2009.
- 拙 稿, <《中朝學士書翰》脫草 원문 및 校釋>, 《중국어문논총》 41집, 2009.
- 拙 稿, <북경대학 소장본 《洪湛軒尺牘》에 대하여>, 《중국어문논총》 45집, 2010.
- 編者 未詳, 《燕杭詩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 1933.
- 허경진·천금매, <홍대용 집안에서 편집한 《燕杭詩牘》>, 《洙上古典研究會》 27집, 2008.

< Abstract >

HongDamHeon Cheokdok(《洪湛軒尺牘》) in Peking University:
Its Deciphered Text and Annotated Translation

Kang, Chansoo

HongDamHeon Cheokdok(《洪湛軒尺牘》), kept in the Rare Books Collection Division of Peking University library, is a collection of letters and poems sent by Hong Daeyong(洪大容), a scholar of the Chosun Dynasty, to three scholars of the Qing Dynasty, Yan Cheng(嚴誠), Lu Fei(陸飛) and Pan Tingjun(潘庭筠) between 1766 and 1767. The collection is in Luo Yizhi(羅以智)'s *Ilha Jegeum Habjip*(《日下題襟合集》).

Through a meticulous translation of these letters collected in *HongDamHeon Cheokdok*, I found that there were several of his letters that were not in the Korean ancient literary books. My finding is original and different as it will be an important literature material for supplementing or correcting Hong Daeyong's literary works in the future researches.

As *HongDamHeon Cheokdok* has a lot of volumes, it is difficult to introduce them at once. I, therefore, present only his nine letters out of thirty letters in this paper.

On the basis of this paper, I hope to facilitate further researches that can discover not only the missing contents of Hong Daeyong's anthology, but several unknown stories of the Qing Dynasty's three scholars.

Key words: *HongDamHeon Cheokdok*, *Ilha Jegeum Habjip*, Hong Daeyong, Qing Dynasty scholar, envo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9. 7. 25.	2019. 8. 9.	2019. 8. 18.	2019. 8. 28.	2019. 9. 30.

